丙子胡亂時 言官의 位相과 活動

——三學士에 대한 再評價——

鄭 玉 子

서 론
1. 「三學士傳」 成立의 背景
2. 三學士의 生涯
3. 三學士의 活動
4. 三學士의 詩作
결 론

서 론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은 조선 500년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였다. 1592년부터 7년여에 걸친 임진왜란이 전국토의 초토화에도 불구하고 패전으로 종식된 것은 아니었음에 비하여 병자호란은 단기간의 한판 승부였음에도 패전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안겨주었다. 불과 40여년 간격으로 일어난 兩亂은 조선후기 사회가 그 후유증을 극복해야 할 당위를 제공하였고, 17세기는 조선사회가 와해된 상태에서 재정비되는 정지작업을 한 시기였다. 특히 상처받은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모색된 復讎雪恥를 위한 北伐論의 제창이라던가 對明義理論인 尊周論의 대두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론체계는 성리학적 명분론인 華夷論에 입각한 것으로 임진왜란때 「再造之功」을 세운 명나라는 中華의 적통이자 조선의 은인임에 반하여 夷狄인 북방오랑캐 여진족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세계질서인 中華秩序를 뒤엎고 무력으로 中原을 도모하여 淸을 세웠으므로 정통성이 없다는 인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병자호란을 당하고 국체의 상징인 왕이 삼전도에 나아가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함으로써 몽고침입이래 유사에 없던 일이 재발되었다는 것이다.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조선지식인들은 정묘호란 이후 이미 '斥和論'과 '主和論'으로 갈려 있던 士論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다. 이들의 명분

론인 華夷論이 바로 그들의 세계관이기도 하였다. 中華的 世界秩序 속에 안정된 농경사회를 추구해 온 조선이 역시 오랑캐로 인식되던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은 섬오랑캐의 대륙으로의 팽창야욕에 의한 것이라 인식되었고, 이는 「天下」의 주도국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明나라의 구원군과 조선군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동북아시아의 세계대전은 기존의 구도를 흔들어 놓고 결국 만주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여진족의 발흥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후금이라 국호를 정한 여진족은 중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후에서 동서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조선을 선제공격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으로 '형제의 의'를 요구하였으나 1636년에는 '君臣의 義'를 내세우고 10만 대군으로 유목민다운 기동력으로 공격해옴으로써 완강히 저항하던 조선을 결국 굴복시키고 말았다.

조선은 1623년 仁祖反正으로 士林이 정계의 주류가 되어 바야흐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현실정치에 구현하려는 시점에서 두 번의 호란을 겪게되자 깊은 좌절감을 안게 되었다. 특히 이미 체질화된 성리학의 기준에서 볼 때 북방오랑캐인 여진족과 형제의 의리나 군신의 의리를 맺는 일은 가당치않은 굴욕이자 치욕이므로 승패불구하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주장이 사림사회의 여론이자 국론이었으니 이것이 斥和論이다.

척화론의 대세 속에 현실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출하여 국가위기를 수습하는 길은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당연히 제기되었다. '淸'으로 국호까지 바꾼 여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中原이므로 조선은 빨리 和議를 성립시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主和論이 대두된 것이다. 전자가 이상론 내지 원칙론이라면 후자는 현실론이었다. 오히려 이들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비교하고 '국론분열'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에 이른 것은 후세의 일이다.

그것은 조선후기 사회가 재정비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게 된 것과 이른바 근대사학이 성립된 후 현재적 가치관과 인식론으로 척화론자를 허황된 명분론자로, 주화론자를 현실을 직시한 역사적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로 평가한 데 기인한다. 이 평가는 현대적인 실리주의와 힘의 논리를 대입시킨 이해방법이지 당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각은 아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왜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斥和論으로 인한 패전의 책임으로 죽음을 당한 三學士(洪翼漢·尹集·吳達濟)에 촛점을 맞추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들은 言官의 직책에 있으면서 당시 지식인인 士林사회의 여론이라 할 公論을 대변하였고 그것이 斥和論으로서 國論이 되었던 것이다.

우선 이들을 조명하고 현창한 시대배경으로 17세기 조선사회의 名分論과 전란의 후유증 극복과정을 간단히 살피겠다. 이것은 「三學士傳」 성립의 조건이었다. 다음은 이들 삼학사의 개인적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烈士로서의 제조건의 성숙과정을 밝히려 한다.

위와 같은 기초작업을 토대로 병자호란의 國難에 처한 이들 세 지식인들이 言官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상을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의의를 짚어 보려 한다.

끝으로 이들 삼학사들이 남긴 詩作을 분석하여 이들의 의식구조를 가늠하여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구도이다.

年代記이외에 宋時烈의 「三學士傳」과 正祖의 왕명에 의해 편찬된 〈尊周彙編〉, 세사람중 유일하게 文集을 찾아 볼 수 있었던 吳達濟의 〈吳忠烈公遺稿〉를 주자료로 활용하였다.

1. 「三學士傳」 成立의 背景

16세기말 7년에 걸쳤던 임진왜란은 당시의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동아질서의 맹주였던 명나라는 전란으로 인한 국력소모와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내부적 붕괴의 제요인에 의해 급격히 쇠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인지한 여진족은 족장 누루하치(奴爾哈赤)를 구심점으로 1616년 나라이름을 後金이라 하여 中原을 넘보게 되었다.

후금은 명의 변경을 점차로 함락시켜 撫順→瀋陽(盛京=奉川)→遼陽→錦州(寧遠城)→山海關에까지 진출하였다. 광해군의 북인정권은 時勢에 따라 向背를 달리하고 관망하는 실리외교를 폈지만 1623년 仁祖反正에 의해 새로 수립된 신정부는 북인정권과는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보였다.

순정주자학도로 자처하던 栗谷 李珥의 학통을 계승한 西人과 退溪 李滉계의 南人이 연합한 연립정권은 中華인 明에 대한 尊周의 의리와 임진왜란때의 「再造之功」을 들어 親明을 분명히 하고 북방오랑캐로 格下하던 여진에 대한 排金政策의 기치를 선명히 하였다.

후금으로서는 명의 우방 조선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1626년 화친을 표방하던 太祖가 죽자 그 아들 太宗은 主戰論으로 선회하고 1627년(인조 5) 정월 30,000명의 군사로 의주를 돌파하고 破竹之勢로 남하하여 安州·平壤을 거쳐 黃州에 이르렀다.

급보에 접한 인조이하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하여 和·戰 양론이 비등하였는데 中原평정의 대업을 앞에 둔 후금이 강화의 의사를 보이므로 3월 3일 강화부 성밖에서 이른바 兄弟의 盟約을 맺고 朝貢과 國境互市를 조건으로 후금군은 철병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丁卯胡亂이다. 후금으로서는 우선 조선의 기를 눌러 伐明에 있어 배후의 안전을 기하고 전쟁수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물량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였다.(1)

정묘호란후 후금은 명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병선과 군량을 조선에서 징발하고 根島 토벌을 명목으로 자주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으므로 조선의 후금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내몽고의 諸部를 평정한 후금은 1636년(인조 14) 2월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기존의 「兄弟의 稱」을 버리고 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는 國書에서 나라이름을 淸이라 하고 스스로 皇帝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다(天無二日)'는 名分論으로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방약무인한 작태를 매도하여 主戰論이 팽배하게 되었다.(2) 청나라의 국서를 돌려 보내고 사신을 잡아가두고 전국 팔도에 宣戰의

(1) 《仁祖實錄》 권 32 인조 14년 2월 己卯條 「自丁卯以來 輸歲幣于金國者 雜色紬 肴六百匹 白苧布二百匹 白布四百匹 雜色木綿二千匹 正木綿五千匹 豹皮五十張 水獺皮二百張 靑黍皮一百張 好刀八柄 小刀八柄 丹木二百斤 胡椒黃栗大棗 銀杏各十斗 乾柿五十貼 全鰒十貼 天池雀舌茶各五十封 今年又因金國詰責 遂加白紬二百匹 白布二百匹 正木綿三千匹 靑黍皮四十張 白綿紙五百卷 好刀十二柄 小刀十二柄」

(2) 윗책 동년 동월 丙申條 및 「三學士傳」 洪翼漢條 「丙子春拜掌令 時虜遣使來 議僭號事 公上疏其略曰 臣日接義州府尹李浚狀啓 金汗稱帝事也 浚能以天無, 二日等語 攘劫之」

敎書를 내리니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3]

순수성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이단적 노선이라 비판하여 北人을 숙청하고 反正으로 정권을 잡은 西人주도의 순정성리학자로 구성된 정부로서는 夷狄인 여진족에게 형제의 의리도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겨졌는데 이에 더하여 君臣의 의리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고 간신히 탈출하여 귀국한 청의 사신 龍骨大로부터 조선의 태도를 확인한 청태종은 12월 2일 10만대군으로 친정에 나섰다. 청군은 기마민족다운 速戰速決의 전법으로 경로의 강고한 수비의 성들(예컨대 임경업이 지키던 義州의 白馬山城 등)을 비껴 진군하여 불과 10여일만인 12월 14일 서울에 육박하였다.

청군 대침의 보고를 조선정부가 받은 것은 12월 13일 적이 安州에 이르렀다는 도원수 金自點의 장계에 의해서였다. 조정에서는 피난을 서둘러 分朝하였다. 우선 세자빈 姜氏와 元孫, 鳳林大君과 麟平大君을 비롯한 妃嬪宗室과 廟社의 神主를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서울에 육박한 청군의 선발대에 의해 강화도에의 길이 막힌 仁祖와 昭顯世子 및 조정대신들은 南漢山城으로 피난하였다.

청군의 선발대가 12월 16일 남한산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청태종은 다음해인 1637년(인조 15, 丁丑) 정월 1일 도착, 炭川에 20만대군의 진을 치고 전군을 지휘하였다. 성안에는 군사 13,000여명, 百官 1,000여명 합하여 14,000여명과 식량은 50여일분이 있었다. 완전히 고립된 성내서는 다시 和·戰 兩論이 치열하게 백중하였다. 정묘호란이후 主戰論이 국론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앞에서 현실론인 主和論이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는 金尙憲·鄭蘊·李敬輿 등이 주도하고 후자는 崔鳴吉을 위시하여 李景稷·金瑬·金藎國·洪瑞鳳·許倜 등이 주도하였다.

남한산성이 포위된지 50여일만인 1637년 정월 23일 강화도가 함락되어 元孫과 世子嬪 姜氏, 두 왕자 및 列聖朝의 御璽와 御寶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성내에 전해지고 기다리던 義兵과 明軍의 來援이 무망함을 인식한 조선정부에서는 主和論이 主戰論을 압도하고 仁祖의 지지를 얻

(3) 윗책 동년 3월 丙午條 및 6월 己巳條

은 主和論者들이 和親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4)

최명길이 全權大臣으로 청진에 파견되어 강화의 조건을 의논하고 정월 30일 인조가 三田渡에 나아가 淸太宗에게 무릎을 꿇고 「城下의 盟」을 맺음으로써 일방적 굴욕을 감수하였다. 완전한 패배로서 「君臣之義」를 비롯한 10여조의 강화조약은 조선에게는 가혹한 것이었다.(5)

이와 함께 전쟁의 책임을 물어 主戰派의 상징적 인물 洪翼漢·尹集·吳達濟 등 三學士는 청진에 잡혀가 심양에까지 끌려가서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써 결국 죽음을 당하였다. 反淸分子처단의 속죄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전쟁의 패전, 특히 國體의 상징이던 국왕이 夷狄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다는 치욕은 조선지식인들을 극도의 좌절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렸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 효종과 송시열이었다.

청군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 이하 인질들은 1644년 청이 北京을 함락하고 나서야 전원 귀국할 수 있었다. 귀국하자 곧 급사한 소현세자를 이어 세자에 책봉되었던 鳳林大君은 인질생활동안 절치부심·와신상담하던 여세를 몰아 왕위에 오르자(孝宗) 西人의 영수로 經明行修하던 山林 宋時烈(1607~1689)을 등용하여 정계개편을 단행하였다.

송시열은 朝鮮性理學의 嫡統으로 자부하면서 栗谷 李珥→沙溪 金長生→愼獨齋 金集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받아 자신이야말로 그 순정성리학의 이념을 현실세계에 구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조선이야말로 무력으로 中原을 차지하고 들어 앉은 오랑캐나라 淸을 쳐 東亞秩序를 회복해야 하는 明의 후계자라는 의식에서 朝鮮中華主義를 표방하였다. 「明天理 正人心 扶正學 闢異端」의 大義名分을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청을 쳐 復讎雪恥해야 한

(4) 뒷날 송시열은 「三學士傳」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行朝가 포위된 후 밖으로는 諸路의 勤王之師가 있는 곳이 奔潰되고 안으로는 양식과 무기가 떨어졌는데 조정이 기대하는 바는 단지 江都로서 이는 廟社·元孫이 있는 국가 本根의 땅이기 때문이었다. 어느날 홀연히 함몰되었다는 보고가 오니 朝議는 다시 의지할 바가 없이 된데다 淸軍의 出城요구가 물시 급하니 衆議는 또 장차 이를 따랐다.」고 하였다(《宋子大全》 권 213 三學士傳).

(5) 《仁祖實錄》 권 34 인조 15년 正月 癸亥條 및 庚午條

다는 北伐論을, 대내적으로는 禮治의 실현이라는 二大命題를 제시하였다.[6]

아울러 對明義理論인 尊周大義를 표방하여 병자호란의 烈士들인 三學士에 대한 전기를 썼다. 「三學士傳」의 저술을 통하여 春秋大義를 천명하고 복수설치의 뜻을 진작시키려 한 것이다. 주자학의 요람지인 宋이 몽고족에게 당했듯이 조선이 비록 북방족 여진에게 당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의한 것일뿐 文化는 조선이 우월하다는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결국 병자호란의 참패로 인하여 조선은 더욱 성리학이념에 충실하여 明이 망한 시점에서 조선이 中華文化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주자성리학은 명실상부한 조선사상으로 심화되었다.[7]

이와 같은 17세기 조선사회의 재편과정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사수한 三學士에 대한 尊崇이 시도되고 그것은 「三學士傳」으로 매듭지워진 것이다.[8]

2. 三學士의 生涯

홍익한·윤집·오달제의 세 사람을 三學士라 일컫게 된 것은 1674년 송시열이 「三學士傳」을 지은 후부터이다. 병자호란 당시에 홍익한은 이미 52세 장년이었고 윤집은 32세, 오달제는 29세로 홍익한은 윤집·오달제와 행동을 함께 한 것은 아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향한 바가 같다는 인식하에 한데 묶은 것이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병자호란 당시에 「浮薄하여 이름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9] 반세기후 송시열의 「三學士傳」으로 평가를 굳힌 후 18세기에 이르러 국가적인 顯彰이 계속되고 있다. 國難에 처하여 殉國한 義人·烈士에 대한 추모사업이 2세기에 걸쳐 계속되었다는 것은 兩亂의 후유증과 지식인사회의 충격과 반성이 2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청산되었음을 의미한다.

---

(6) 《英祖實錄》 권25 영조 6년 3월 丁卯 「上發利川 到南漢東門外……領議政 洪致中曰 城下之盟 昔人所恥……惟我廟廟 招延山林之士 勵薪膽之志 講復雪之策 將以伸大義於天下後世」

(7) 拙稿, 1985 〈大報壇 創設에 관한 硏究〉(邊太燮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8) 송시열의 西人政權의 名分강화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校理 尹集條 「且言三司忘君負國 循默依違之罪 自是人皆側目 指爲浮薄好名之人 必欲危中之」

〈洪翼漢〉(1586～1637, 선조 19～인조 15)[10] 홍익한은 1586년(선조 19, 萬曆 丙戌) 11월 22일 진사 洪以成과 안동 김씨(金琳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霫(습), 字는 澤遠이었는데 뒤에 翼漢으로 개명하고 字를 伯升으로 고쳤다. 號는 花浦 또는 雲翁이며 본관은 南陽이다. 月沙 李廷龜문하에서 수업했는데 월사는 그를 가르켜 「異日에 반드시 위인이 될 사람」이라고 평하였다 한다.[11]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 秀發하고 「孝友忠信」하였으며 역사를 읽을 때마다 節義에 죽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얼굴색이 동하여 마음으로 사모하였다.

1615년(광해 7) 小科에 합격하여 生員이 되고 1621년(광해 13) 謁聖科에 들었지만 권세가의 자손이 아니라 하여 權偉들이 발거하여 뽑히지 못하였지만 태연히 대응하였다.[12] 1624년 즉 인조반정 다음해에 왕이 공주에 幸行하여 庭試를 행하자 장원으로 급제하니 이미 39세였다. 말하자면 인조반정 후에 비로소 발탁된 것이다. 典籍으로 시작 監察·司書·正言·兵曹正郎 등 淸要의 중간직을 두루 거쳤다. 1627년 정묘호란때는 正言이라는 언관직에 있어서 姜弘立의 죄를 논하였고 1636년 봄 掌令으로서 여진의 僭號(나라이름을 淸이라 하고 皇帝를 자칭함)의 오류를 맹박하였다.[13] 이후의 활동은 뒤에서 논하겠다.

그는 두 번 결혼하여 전처인 具氏(正郎 具坤源의 딸)와의 사이에 洪晬元과 딸(고양군수 鄭昌徵의 처)이 있었고 후처 許氏(군수 許寔의 딸)와의 사이에 洪晬寅과 두 딸(士人 尹世鳴의 처와 재령군수 沈益善의 처)이 있었다. 이들 가족들도 모두 죽음에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후처 허씨가 적을 만나 굴하지 않고 전처소생의 洪晬元이 계모 허씨를 몸으로 막다가 칼에 맞아 죽으니 허씨는 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고 며느리 이씨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허씨소생의 아들 洪晬寅역시 강화도 마니산에서 적에게 피살당하니 일가가 전멸하고 출가한 딸들만 남았던 것이다. 繼後者가

(10) 특별한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宋時烈의 「三學士傳」중 洪翼漢條에 의거하였음.

(11) 《國朝人物考》 下(서울대 출판부) p. 844 洪翼漢 墓碣銘 (宋時烈 지음) 「嘗受業於月沙李公廷龜 月沙稱之曰 異日必爲偉人也」

(12) 여기서 權偉란 大北政權의 用事者들을 말하며 이 정권하에서 홍익한은 36세가 되도록 大科에 합격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13) 《仁祖實錄》 권 32, 인조 14년 2월 丙申條

된 洪應元이 뒤에 홍익한의 衣履와 부인 허씨를 평택현 서쪽 鯨井里 巽坐乾向之原에 장사지내었다.

송시열은 그를 위한 墓碣銘에서

> 아아, 우리 동방이 殷師이래 예의가 素明하더니 고려말에 이르러 포은선생(정몽주)이 道學을 부르짖고 본조에 이르러서는 또한 洛建의 風이 駸駸하였다. 때문에 三綱, 五常의 典이 家傳하고 人誦되어 大節에 임함에 이르러 一身으로 기둥을 지탱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
>
> 수백년 綱常에 공의 彰明을 앞지를 자 없는데 하물며 부인 허씨와 자부 이씨가 지아비를 위해 죽고 아들 晬元이 어버이를 위해 죽었으니 공과 더불어 함께 三綱의 중함을 세웠도다. 이로서 공이 모범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廉頑·立儒의 풍모는 진실로 장차 천백세가 되어도 슬프지 않다. 아아, 위대하도다.[14]

하여 높이 평가하였고

> 日月의 밝음이여, 山岳의 높음이여, 그 누가 그와 더불어 높고 밝으랴, 오직 花浦公(홍익한)의 절개뿐이로다.[15]

고 찬양하였다.

〈尹集〉(1606~1637, 선조 39~인조 15)[16] 윤집은 현감 尹衡甲과 황씨(관찰사 黃致敬의 딸)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의 조부는 임진왜란때 순절한 尹暹(윤섬, 1565~1592)이었다. 본관은 南原이고 字는 成伯, 號는 林溪 혹은 高山이다. 그는 출생시부터 秀異하였다 하며 13세에 아버지가 별세하자 백형인 尹棨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自力爲學」하였고 행실이 독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1627년 22세때 소과에 급제하여 生員이 되었고, 1631년 26세로 別試文科에 합격하여 槐院(承文院) 正字에 취임, 1632년 侍講院 說書가 되었다.

司諫院 正言이 되었을 때 형 尹棨가 天曹郎(吏曹正郎)에 임명되자 형제는 서로 경계하여

> 우리가 逾人(남을 뛰어 넘음)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淸班을 차지한 것은 두려

(14) 《國朝人物考》 下. p. 845 洪翼漢 墓碣銘(宋時烈 지음)
(15) 위와 같음 「日月之昭乎 山岳之崇乎 其孰與之高明乎 夫惟花浦公之節乎」
(16)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校理 尹集條에 의거하였다.

운 일이다.[17]

하였다. 1635년 6월 弘文館에 新錄되고 說書, 修撰, 副校理를 거쳐 司諫院 正言, 獻納과 吏曹佐郎·正郎을 역임하였다. 말하자면 淸要職을 두루 거친 것이다.

成均館 直講이 되어 1636년 9월 영남지방 시험에 임하였다가 채 복명하기 전 길에서 獻納에 배하고 겨울에 홍문관 校理가 되었으니 언관직의 핵심이었다.

그의 성품은 淸介하고 直截하였으며 聰明絕人하여 눈에 거치는 것은 모조리 기억하였다 한다. 어려서부터 孝友로와 형제 세 사람이 한 방에 기거하며 학업에 힘썼는데 생산에 종사하지 않아 옷은 떨어지고 음식은 거칠었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한다.

淸陰 金尙憲의 조카딸(都正 金尙宓의 딸)과 결혼하여 以宣과 以徵의 두 아들을 두었다. 김씨는 성격이 단정하고 결백하여 남편이 적진에 잡혀 갔다는 소식에 죽기를 작정하였으나 친정아버지의 권유로 살아 남았다가 1665년(현종 6) 7월 10일 사망하였다.

윤집이 심양에서 순절하여 그의 노복이 招魂한 것은 1637년 4월 19일이었는데, 그가 죽은지 35년 후인 1671년(현종 12)에 비로소 衣冠으로 虛墓를 金浦현에 만들고 부인 김씨도 여기에 祔葬하였다. 윤집의 맏아들 尹以宣은 현감을 지냈는데 그의 아들 尹濂泓의 막내딸이 홍익한의 손자 洪禹錫에게 시집감으로써 윤집과 홍익한은 죽어서 사돈이 되었다.

훗날 효종은 윤집의 가문에 대하여

> 尹暹의 祖孫兄弟(할아버지 윤섬, 큰손자 윤계, 작은 손자 윤집)는 兩世의 三節이니 어찌 귀하지 않은가.[18]

하고 그 충절을 기렸다.

송시열은 윤집의 묘갈명에서

> 한 몸에 천하의 의로움을 맡았으니……魯史에 「尊周攘夷 天無二日」이라 했는데

---

(17) 위의 「三學士傳」 尹集條 「憂吉拜 司諫院正言 柴時爲天曹郎 兄弟相戒曰 吾等無以逾人 而俱玷淸班 此甚可懼也」

(18) 《國朝人物考》 下, p. 884 尹集 墓碣銘(宋時烈 지음)

그것이 밝혀지면 人類요, 어두워지면 夷狄이라 하였으니 백성이 실로 받은 바 크구나, 아! 成伯(윤집의 자)이여![19]

라 찬양하였다.

〈**吳達濟**〉(1609~1637 광해군 1~인조 15)[20] 오달제는 吳允諧의 세째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海州, 字는 季輝, 號는 秋潭이다. 백부 吳允謙에게서 배웠다. 오윤겸이 율곡 李珥와 우계 成渾에게서 배웠으므로 기호학파에 속하고 당색은 西人이다.

19세때인 1627년(인조 5) 小科인 司馬試에 입격하여 26세였던 1634년(인조 12)에 別試文科에 장원하였다. 1635년 6월 윤집과 함께 弘文館에 新錄되었다. 成均館의 典籍, 兵曹佐郎, 侍講院 司書, 司諫院 正言, 司憲府 持平을 역임하고 1636년에 弘文館 副修撰, 修撰, 副校理가 되니 역시 청요직을 골고루 거친 엘리트였다. 병자호란 당시 그의 직책은 홍문관의 修撰으로서 언관직의 실무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公論인 斥和論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 인품은 寬厚·忠信하고 端方正直하여 平居에는 순순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국가대사나 時政의 得失 등 경륜에 관련된 큰 일에 미쳐서는 「辭氣가 激昂되고 慷慨가 넘쳐 듣는 사람이 모두 몸을 움츠렸다」 한다.[21]

어려서부터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워 몸가짐(持身處事)이나 사람과 물건을 대하는 태도(待人接物)가 하나도 孝悌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공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본 사람은 아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효제의 마음이 우러나게 되었다 한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미친다(其存於己而及於人者)」라는 말이 그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오달제는 초취 申氏가 자식없이 세상을 뜨자 南一星의[22] 여동생(현령 南炓의 딸)과 결혼하여 처가쪽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는 처남 남일성과의

(19) 위와 같음 「一身任天下義 其義伊何聖修 魯史尊周攘夷 天無二日 明則人類 晦則夷狄 民實受賜 吁嗟成伯」

(20)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修撰 吳達濟條와 南一星의 「遺事」(《吳忠烈公遺稿》 第2冊)에 의거함

(21) 남일성의 「遺事」 중 「公爲人寬厚忠信 端方正直 平居恂恂 然似不能言者 及論國家利病 時政得失 辭氣激昂 慷慨無所回避 聞者皆縮頸目」

(22) 남일성은 오달제의 처남으로 遺事에서 그에 대한 생생한 프로필을 묘사하였고 그 아들 南九萬은 이 遺事에 후기를 써 전후사정을 자세히 밝혀 놓고 있다.

대화에서

> 무릇 사람이 利害에 임했을 때 그가 지키던 것을 많이 잃게 된다. 대개 사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古今에 비추어 보건대 利를 택하는 자가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며 害에 처한 자가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더라.……(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음)……사람은 마땅히 해야할 바를 해야할 뿐이니 어찌 利害를 비교하고 死生을 헤아려 뒤를 돌아 보고 앞을 바라보며 망서리리요. 군자가 道를 지키기 위해서는 死生은 애초에 논할 수 없으며 남의 힘을 빌 수도 없는 일이다.[23]

하였다. 역시 남일성에게

> 사람이 죽음에 처하여 만약 처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他日로 미루고, 또 他日로 미루어 마침내는 偸生(목숨을 아낌)을 면치 못하고 구차스럽게 모면하는 데로 돌아가니 마땅히 이를 경계로 삼아야겠다.[24]

하였다. 그의 투철한 死生觀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심양으로 끌려 가면서 楊花津에서 형 吳達升에게 보낸 편지(1637년 2월 9일자)에는

> 심양에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은데 이는 빨리 죽느니만 못하다. 하지만 義理란 반드시 죽는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私情은 반드시 살아야 할 형편이니 오로지 바른 길을 순순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늘이 만약 도운다면 어찌 살아 돌아와 서로 볼 날이 없으리요.[25]

라 쓰고 머리 빗는 여러 기구와 망건, 신발 등 의관을 정제할 수 있는 물건

---

(23) 《吳忠烈公遺稿》 坤「遺事」後記「先君平日 嘗以公之語訓于九萬曰 季輝謂余曰 凡人臨利害 多喪其所守者 盖以惜生而畏死故也 雖然 以余觀於古今 擇利者不必生 而處害者不必死……人當爲吾之所當爲而已 又何較利害計死生 有所顧望前却哉 君子守道 死生初非可論 而其不可以容人力者」 이 기사는 남일성이 아들 남구만을 훈계하기 위하여 남구만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오달제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을 뒤에 남구만이 遺事의 후기에서 다시 회상해 쓴 것이다.

(24) 위 기사의 다음에「且先君祭公 文有曰 兄嘗謂余 凡人處死 若不能斷之於初而以姑待他日爲心 則至他日 又有待他日之心 終不免偸生 苟免之歸 吾儕當以此爲戒」이 기사는 남구만이 아버지 남일성의 오달제를 위한 祭文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25) 《吳忠烈公遺稿》 乾 簡牘 上伯氏〔承旨〕書「近間屢聞彼中說話 則旣到瀋陽之後 必將有久留不送之患 果如是 則不如速死 無知之爲愈也 然義理無必死之道 私情有必生之勢 兄當順受其正而已 老親弱妻 若聞弟之西行 則必至傷懷生病 須以好語 開導萬端 如何無益 只傷生耳 天若有助 豈無生還相見之日乎」

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경황중에도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할 방도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이 편지는 부치지 못하고 있다가 2월 12일 파주의 楓水院근처에서 後書를 첨부하여 부쳤다. 후서에서는 60여일이나 의복을 갈아입지 못한 고충을 호소하고 筆墨紙 등 문방구를 부쳐달라고 부탁하였다.[26]

3월 9일 信川에서 형 오달승에게 부친 편지에서는

> 이번 가는 길에는 많이 체류하게 되어 언제 심양에 도착할른지 알 수 없읍니다만 4월내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27]

라 기약하고 가족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뒤에서 보듯이 그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다. 재취인 남씨에게 遺腹女가 있었지만 요절하였고[28] 형 오달승이 高原에 있을 때 따라 갔다가 官娼에서 낳은 서자가 그의 후손으로 유일하였다.[29]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은 병자호란 당시 모두 언관직에 있었다. 홍익한은 이정구의 제자로 기호학파이며 당색은 西人이었고 윤집은 김상헌의 조카사위로 역시 기호학파로 西人이며 오달제는 栗谷·牛溪 門下에서 배운 백부 오윤경에게서 배웠으니 역시 기호학파로 西人이다. 다시 말하면 서인의 두 거봉인 이이와 성혼의 재전제자들이다. 뒤에 老·少論이 갈리자(1683년경) 홍익한 윤집가문은 노론, 오달제는 소론가문으로 편입되었다.

세 사람 모두 小科에서 生員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성리학적 교양을 체질화시킨 학자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조반정후에 벼슬길을 시작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쳐 병자호란당시에는 사헌부 掌令, 혹은

---

(26) 위의 편지에 이은 後書. 이 후서에서 자신을 심양에 호송하는 청군의 主將이 때때로 음식을 보내어 대접하기 때문에 下卒守直者에게서 困辱받지는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7) 《吳忠烈公遺稿》 乾 簡牘 上伯氏書 〔在信川地〕「此將之行 多留滯之處 不知何時 方倒瀋陽 然其還必在四月之內矣」

(28) 宋時烈의 「三學士傳」 修撰 吳達濟條 「始娶申氏無子 再娶縣監南炓女 僅踰一年 而遭亂北去 人猶幸其有遺腹矣 及朞生女而又夭 人皆以爲天道無知也」

(29) 《仁祖實錄》 권 35 인조 18년 5월 庚子 「又曰 吳達濟有遺服女子 不幸夭死 其兄達升爲高原時 達濟有官娼之相近者 得生男子 而係是北產其家 不敢率來云矣 上日事甚矜惻 其令免賤」

홍문관 校理, 修撰 등 言官職의 핵심에 있었기에 당시의 公論인 士論을 대변하기에 이른 것이다.[30]

3. 三學士의 活動

1636년 2월 후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그 국서에서 나라이름을 淸이라 하고 스스로 皇帝를 칭하고 조선에게 형제의 의리가 아닌 君臣의 의리를 강요하는 뜻을 전하자 조선정부에는 斥和論이 비등하였고 당시 사헌부 장령의 직책에 있던 홍익한은 公論을 대신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후금의 사신을 목벨 것을 주장하고 稱帝의 참람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은 禮義로 천하에 알려진 小中華인데 감히 북방오랑캐가 兄弟之義도 모자라 君臣之義를 강요하니 마땅히 책임추궁하고 사신을 목베어 「禮義之大」와 「隣國之道」를 밝힌 國書와 함께 그 머리를 明나라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 신이 어찌 君父로 하여금 욕되게 하고 구태어 살아 남겠습니까? 아! 신이 비록 병약하나 적의 칼에 스러지겠습니다. 東土수천리에 어찌 한 사람의 義士가 없을 것입니까?[32]

하여 스스로 義士로 자처하였다.

인조가 망서리고 관망하던차 청나라 사신 龍骨大가 도망하였다. 때에 崔鳴吉이 和議를 강력히 주장하여 청과 通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홍익한은 大義로서 최명길을 面斥하였다. 12월 13일 청군이 쳐들어 올 때 평양 庶尹이 결원이었다. 최명길은 체찰사 金瑬에게 「斥和해서 청의 침략을 초래한 자는 홍익한이니 지금의 西路之任(평양 서윤)은 그 말고 누구이겠는가?」하고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 사람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니 「殉國 死敵은 素心이다」하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33] 12월 14일 인조에게 肅謝하고 재

(30)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修撰 吳達濟條 「上疏曰 臺閣者 公論之所在也 公論一發 則雖以人主之尊 不能脅持 大臣之重 不能沮遏」

(31) 《仁祖實錄》 권 32 인조 14년 2월 丙申 掌令 洪翼漢上疏

(32)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掌令 洪翼漢條 「臣忍使君父受辱 而苟生哉 噫 臣雖孱弱 猶思乘一障 而隕身於虜鋒矣 環東土數千里 寧無一人義士哉」

(33) 위 기사 다음에 「十二月 十三日 虜警猝至 時平壤缺庶尹 鳴吉謂體察使金瑬曰 斥和以致虜者 洪翼漢也 今西路之任 捨此其誰 遂除授促行 人多來弔 而公

촉하여 길을 떠났는데 청의 기병은 이미 西郊에 육박하고 있었다. 母夫人을 받들고 강화의 마니산에서 安泊하고 喬桐으로부터 서쪽으로 달려 任所에 도착하니 적진을 뚫고 20여일만에 비로소 평양의 寶山城에 도착한 것이다.

때에 원수 김자점이 패하여 인심은 흉흉하고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는데 그는 글을 발하여

> 이미 기율을 어겨 결코 용서받기 어려운 자라도 오직 마음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고자 하여 혹시 적의 형세를 살피거나 혹은 뒤따라 추격하고 혹은 밤을 타서 적진을 때려부수거나 적의 목을 베어 오고 포로를 사로잡아 공을 세운 자는 지난 죄는 영구히 사하여 줄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각기 힘써 싸우라.[34]

고 독려하였다. 이에 흩어졌던 무리가 돌아와 모여 계책을 짜고 밤낮으로 守備의 방책을 세워 성을 보존하였다.

윤집은 1636년 봄 홍문관 부교리직책의 언관으로서 斥和疏를 올렸다. 臺閣은 公論이 발하는 곳인데 최명길이 조정도 대각도 무시하고 和議를 도모하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 「나라가 臺諫을 두고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통박하였다.[35]

1636년 12월 14일 청군의 선봉 500여기가 도성에 밀어닥치고 인조가 조정 백관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때 윤집은 관직을 파하고 집에 있다가 창졸간에 변란소식에 접하자 걸어서 왕의 수레를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홍익한은 이미 평양서윤에 좌천된 상태여서 남한산성에 포위된 12월 14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 50여일동안 斥和論을 언관의 직으로 주도한 사람은 윤집과 오달제였다.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主和人을 성토하는 의론을 校理의 직책에 있던 윤집

略無幾微色曰 殉國死敵素心也 聞者嗟嘆」

(34) 위 기사 다음에 「身既犯律 決難客貸 惟改心易慮 以圖自新 或覘賊形勢或躡後追擊 或乘夜斫營 或折馘執 俘期樹將來之績 永贖己往之罪 我言不誣其各勉旃」

(35)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1월 戊申 副敎理 尹集上疏

이 주도하였는데[36]

> 孤城이 危迫한 시점에 강화하지 않고는 적을 물리칠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애걸하면 적은 더욱 경멸하여 和議는 마침내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싸워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37]

하였다. 여기에 그의 현실인식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치단결하여 전의를 불태우고 또 그러한 강고한 태도를 보여야 비로소 강화도 제대로 성립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굴종하면 상대가 경멸하게 되므로 일방적인 굴욕만 감수하게 되리라는 지론이었다.

사실 이때 청나라의 목적은 明이었지 조선이 아니었다. 명을 쳐 中原의 주인이 되려는 작전에서 볼 때 조선은 배후에 있는 방해물이었기에 우선적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달 반동안 산성을 포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청태종도 초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 강경론을 펴 1637년 正月 元日에 청진에 소와 술을 보내자는 의론에 적극 반대하고 一死戰을 결하자고 주장하였다. 主和論이 점차 강세를 띠자

> 三司가 忘君負國하고 循默 依違의 죄를 범하였다.[38]

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에 「浮薄好名之人」이라 비판받기에 이르렀다.[39]

1637년 1월 7일 그의 형 尹集가 府使로 있던 南陽府가 함락되고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오자 遞職을 빌어 허락받아 물러났다.[40]

1636년 10월 修撰이라는 언관직에 있던 오달제는 삼학사중 가장 젊은 28세

---

(36) 원책 인조 14년 12월 壬辰 「上在南漢山城 三司齊會 將請斬主和之人 校理尹集主其論 大司諫金槃 執義蔡裕後 以爲太過 力沮而止」 및 동년 동월 丁酉條

(37)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校里 尹集條 「當此孤城危迫之日 非以講和 退敵爲不可 蓋自我乞哀 則虜益輕我 和終不可成也 惟一意戰守 示我可以有爲 然後和可議也」

(38) 위 기사 다음에 「且言三司忘君負國 循默依違之罪 自是人皆側目 指爲浮薄好名之人 必欲危中之」

(39) 위와 같음.

(40) 위의 기사 다음에 「初七日 聞南陽府陷敗之報 其府使即公兄槃也 公之遞職 上許之」

의 청년으로서 강경한 斥和論을 폈다.

지난번 최명길이 청에 사신을 보내고 글을 통하는 의론을 絕和후에 발하였습니다. 三司의 公論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上意(임금의 뜻)의 소재를 믿고 나라의 事體는 생각치 않고 荒亂의 說을 늘어놓아 위로는 天聰을 흐리게 하고 아래로는 公論을 위협하고 있습니다.……玉堂이 대놓고 배척함에 이르러 群議가 격발한즉 명길은 마땅히 惶愧縮伏하여 물의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悖理之論을 말하고 和事가 끊어질까 두려워하고 義理는 어찌되든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臺閣의 의론은 체면이 매우 중하여 비록 대신의 자리에 있어서 相抗치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사직하여 불안한 뜻을 보일 것이지 명길이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公論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縱恣하여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까? (41)

이에 대하여 인조는

무릇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다만 그 잘못만 책하는 것이 옳다. 만약 경중과 존비를 살피지 않고 매도하기를 뜻하는 바대로 함은 不可하다. 판윤 최명길은 一品重臣으로 사직에 공이 있으니 설사 그 말이 맞지 않더라도 멸시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黃口小兒가 모욕을 가하니 오늘날의 國習이 한심하다. 오달제를 먼저 파직하라. (42)

하였다. 이상 오달제와 인조의 대응에서 보이듯이 당시 三司의 公論이 斥和로 모아 졌는데도 최명길이 인조의 뜻을 받들어 和議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젊은 언관의 공격임무를 오달제가 수행한 것이다. 특히 인조가 오달제를 黃口小兒(어린아이)로 몰아 重臣을 모욕한다고 책망하고 그러한 國習을 한탄하고 오달제를 파직한 조치는 士林政治에 대한 인조의 반응을 대변해 주고 있다. 즉 斥和는 인조반정이후 지향한 사림정치의 이상이었지만 위정자의 자리에 있던 인조의 입장으로서는 현실론에 기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상소는 교리 金光燁과 수찬 李稠가 함께 하기로 하였음에도 두 사람이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자 오달제 홀로 분연히 公論을 대변하여 抗言하였다는 것이며 뒷날의 화가 이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 한다. (43) 이 때 파직되어

(41)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0월 壬申
(42) 위와 같음
(43) 위와 같음. 「按違濟欲割論鳴吉 校理金光燁以爲不可無此論 言之甚力 其後乃

집에 있던 오달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걸어서 왕의 수레를 좇아 남한산성에 들어 갔다.

결국 화의 성립의 조건으로[44] 청은 斥和의 首謀人을 잡아내라고 요구하고[45] 廟堂은 수십명을 보내려하는데[46] 그 당사자들은 서로 변명하여 며칠이 지나도록 미결상태였다. 결국 淸陰 金尙憲, 相溪 鄭蘊, 八松 尹煌 등이 자수하고 오달제와 윤집이 연명으로 청진에 갈 것을 청하였다.[47] 오달제가 자수하려하자 그의 형 오달승은 만류하여

> 적이 찾는 것은 春初 首謀人인데 너는 首謀之人이 아니지 않는가?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48]

하니 오달제는 대답하기를

> 비록 首謀는 아니지만 이미 和議를 배척하였고 지난번 상소할 때에 실로 오늘의 사태가 있을 것을 예견했읍니다. 더구나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입을 봉하고 구차스럽게 모면하려할 것입니까[49]

하니 형 달승이 더이상 말리지 못했다.

1637년 1월 29일 윤집·오달제는 청진으로 떠나기 앞서 남한산성에서 仁祖에게 하직인사를 하였다.[50] 이들을 인견한 인조는 눈물을 흘리며

曰 吾妻與鳴吉妻有族分 嫌不可參論 修撰李稠初與之商確 而後乃稱病不來 達濟憤之 遂上疏抗言 達濟後日之禍 實由於此 稠之不正 固不足論 光爀素稱自好 其於鳴吉 亦所不取 而知上意 方嚮鳴吉」

(44)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正月 癸丑條 및 辛酉條

(45) 윗책 동년 동월 壬戌「司諫李命雄請對曰 賊之所貪只二事而已 臣亦斥和之人也 萬一有益於解圍 則臣子分義 死無所避 欲先出去 以塞其意矣」라 하였듯이 청의 요구는 인조의 출성항목과 斥和人 색출인도였다.

(46) 윗책 동년 동월 동일「政府令斥和人自首」

(47) 윗책 동년 동월 癸亥條「前校理尹集前修撰吳達濟上疏曰臣等伏聞廟堂 令前後斥和之人 自首以往 當此之時 苟可以救君父之危急 在廷諸臣 孰敢不出臣等於去年秋冬 疏斥崔鳴言之主和 是乃斥和之尤者也 請赴虜營 伏劍一死 以塞狡虜一款之請 第聞廟議 欲令臣等 謝罪於犬羊 廟堂之意 其亦感矣 臣等旣無可謝之罪 又非奉命之臣 有何酬酢於虜賊 此則不敢承當矣」

(48) 《吳忠烈公遺稿》 坤 遺事「公之初欲自首也 公之兄承旨公達升 執手流涕曰虜之所索者 春初首謀之人也 汝非首謀之人 奈何如是乎」

(49) 위의 기사에 이어「公曰雖非首謀 旣斥和議 當初 上疏時 固知有今日 而主辱臣死 分所由心 豈容緘默 以圖苟免 承旨公不能止」

(50)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正月 己巳「遣崔鳴吉李英達 賚國書送虜營 執送斥和臣尹集吳達濟集等辭朝」

너희들이 죄없이 죽음에 나아가니 내 마음이 베어내듯 아프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구나[51]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인조는 그들이 아직 젊어 식견이 얕지만 나라를 그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임금으로 하여금 守正케 하려는 뜻이었음을 인정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국가존망의 위기와 왕의 出城수모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것이다.[52]

이보다 먼저 청이 강화조건으로 제시한 丙子년 봄의 斥和首謀之人은 당연히 홍익한으로 지목되어 체포 縛送하라는 조치가 있었고[53] 2월 12일밤 중산현령 邊大中에게 평양 豆里島에서 잡혀 淸陣에 縛送되었다.[54]

1637년 2월 25일 심양에 도착하여 28일 別舘에 갇혔는데 博士官이 나와 연회를 베풀고 조석으로 성찬을 대접하면서 황제가 내리는 음식이므로 먹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으나 홍익한은

나는 단지 한번 죽음이 있을 뿐이니 이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55]

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전년에 사신으로 왔다가 죽음을 모면한 淸將 龍骨打가 와서 통역을 통해 문답하였다.[56]

너는 어찌하여 들어 왔는가

물었다.

나는 斥和를 首倡하여 왔다.

고 대답하였다. 다시 龍이

너희 나라의 朝官중 斥和한 사람이 매우 많은데 어찌 한 사람뿐이냐

하니 다시 대답하기를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핑계대랴

(51) 위와 같음
(52) 위와 같음
(53) 윗책 동년 동월 壬戌
(54)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掌令 洪翼漢條
(55) 위와 같음
(56) 위와 같음. 이하 대화내용은 모두 「三學士傳」에 의거하였다.

하였다. 다시 龍이

너 이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인즉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대라

윽박질렀다. 이에 홍익한은

지난해 봄 네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을 때 너의 머리를 베자고 청한 사람은 나 한사람뿐이었다.

고 대답하니 龍骨打가 웃으며 가버렸다.

3월 5일 홍익한은 淸帝가 兵威를 갖추고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에 안색하나 변치 않고 평상시같이 먹던 밥을 다 먹고 자신을 따라온 노복 劄頭에게

청제가 반드시 나를 굴욕스럽게 하고자 할 것이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반드시 죽는다.(57)

하고는 재촉하는 청병을 따라 천연스럽게 천천히 걸었다. 청병을 거스를까 두려워한 노복이 옆에 따라가며 걸음을 재촉하니 홍익한은

남아가 여기까지 왔으니 마땅히 조용히 죽음에 나아갈 것이다. 어찌 창황 失措하겠는가.(58)

하였다. 뜰아래 이르러 결연히 우뚝 서니 청태종은 결박을 풀게 하고

너는 어찌 무릎을 꿇지 않고 거만하기가 이와 같으냐(59)

하니

이 무릎을 어찌 너에게 굽히겠는가

대답하였다.(60) 다시 청제가

너는 어찌 먼저 丁卯의 맹약을 어기고 斥和하여 두 나라에 틈이 생기게 하였느냐?(61)

하니

(57) 위와 같음
(58) 위와 같음
(59) 위와 같음
(60) 위와 같음
(61) 위와 같음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는 이미 약속하여 형제가 되었는데 도리어 稱帝하여 우리를 신하로 삼으려 하니 약속을 어긴 실수는 너에게 있지 나에게 있느냐.[62]

하고 반격하였다.[62] 청제가 말이 막혀 한참 있다가

네가 이미 앞장서서 和約을 배척하였으니 그 뜻은 반드시 우리를 섬멸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우리 大軍이 出兵했을 때 어찌 격퇴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잡힌 바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63] 이에 홍익한은

내가 집착한 바는 大義뿐이지 成敗存亡은 모름지기 논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 나라 臣民으로 하여금 나의 뜻과 똑같이 하게 한다면 너희 나라의 멸망은 머지 않았다.[64]

하고 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벌거벗고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刑殺은 반드시 난도질한다더라. 어찌 빨리 난도질을 안하는가.

하였다.[65] 이어 붓을 찾아 종이에 쓰기를

大明 朝鮮國의 갇힌 신하 홍익한은 斥和事意를 역력히 개진하는 것이 가하지만 어음이 서로 이해되지 못하므로 마땅히 文墨으로 控白한다. 무릇 四海之內에 모두 형제가 될 수는 있지만 천하에 두 아비가 있는 자식은 없다.

조선은 본래 禮義로서 서로 숭상하고 諫臣은 오직 直截로서 임무로 삼는다, 때문에 작년 봄 나는 言責之任을 맡아 너희 나라가 盟約을 어기고 稱帝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만약 맹약을 어겼다면 이는 형제를 어긴 것이고 稱帝한다면 天子가 둘이 되는 것이라 여겼다. 한 門庭안에 어찌 형제를 어길 수 있으며 覆載之間(하늘아래) 어찌 두 명의 천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너희 나라가 조선에 새로이 交鄰의 약속을 하고 먼저 약속을 어겼다.

大明과 조선은 옛날 字小의 은혜가 있어 깊이 맺어져 있다. 깊이 맺은 大恩을 잊고 먼저 배신한 헛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이치가 매우 不近하고 의리에도 심히 맞지 않는다. 때문에 우선 이러한 의론을 세우고 禮義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니 어찌 딴 일이 있겠는가? 다만 臣子는 分義가 있어 마땅히 忠孝를 다할 뿐이다. 위로 君親이 있는데 모두 扶護하여 안전케 하지 못하고 王世子와 大君이 모두 포로가 되었고 늙은 어머니의 생사역시 모르고 있다. 지난번 나의 상소로 말미암아 가정과 국가의 禍敗를 초래하였으니 忠孝의 도리에 비추어 보

(62) 위와 같음
(63) 위와 같음
(64) 위와 같음

건대 내 죄는 죽어 마땅하지 용서받을 수 없다. 비록 만번 誅戮을 당하더라도 甘心으로 할 것이니 빨리 죽여달라.

하였다.[66] 청제가 漢人의 통역을 듣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렵구나, 이 사람은![67]

하고 다시 홍익한의 斥和疏를 꺼내어 보이면서

내가 어째서 황제가 될 수 없단 말이냐.[68]

하고 물었다. 이에 홍익한이

너는 天朝(明)의 叛賊이니 어찌 황제가 될 수 있느냐[69]

반격하였다. 이제 청제는 크게 노하여 두 명의 청병에게 양팔을 잡고 나가게 하니 이들은 그 나라의 刑殺人이었다. 이날 홍익한은 결국 죽음을 당하였다.

이상 淸太宗과 洪翼漢의 문답에서 양자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斥和는 당연히 이길 승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실론적 논리이고 후자는 言官의 역할이란 大義를 밝히는 것이지 成敗·存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성리학적 명분론이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힘의 논리만을 숭상하는 북방족과 文治國家인 조선의 차별성이었다. 그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였기에 비굴하게 굴지 않고 청의 背約과 무도함을 조목조목 따지고 조선 士大夫의 기개를 떨치고 최후를 마친 것이다.

청나라가 이 당시 처한 상황은

大明을 범할 수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웃나라를 친할 수 없음을 걱정하고 이웃나라를 친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學士·大夫를 굴복시키지 못함을 근심하였다.[70]

---

(65) 위와 같음

(66) 위와 같음 또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3월 甲辰「淸人殺洪翼漢 翼漢曾爲掌令 上疏請斬虜使 以明大義至是 淸兵入冠去邠之日 廟堂建議 以翼漢差平壤庶尹 促行赴任 及吳達濟尹集被執而去也 朝庭令平安都事 械累翼漢 並送于虜陳 入瀋陽 遂被害 臨死索筆爲文 言其志 以責虜人 其文曰……」

(67) 宋時烈의 「三學士傳」 掌令 洪翼漢條

(68) 위와 같음

(69) 위와 같음

(70) 《江漢集》 권27, 明陪臣傳「瀋陽與義州 北境最近 有如義州出輕騎 直搗巢穴 則淸人前不得進 後不得退 徘徊於山海關外 而瀋陽已灰燼矣 是故不患大明之不可犯 而惟患鄰圖之不可親 不急鄰圖之不可親 而惟患學士大夫之不可屈也」

는 것인데 홍익한이야말로 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선지식인의 지조를 분명하게 인식시킨 것이다.

홍익한이 斥和의 首唱人으로 3월 5일 심양에서 절의를 굽히지 않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지만 청은 이에 그치지않고 斥和論의 뿌리를 뽑으려 하였다. 남한산성에서 斥和大臣들(김상헌·정온·이윤황……)을 배경으로 숙죄양이 된[71] 윤집과 오달제는 1월 28일 인조에게 하직하고 29일 최명길을 따라 나섰다. 일행이 陽坡에서 쉬고 있을 때, 최명길이

> 자네들은 스스로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들이 만약 힐문하면 자네들은 우리들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 때 臺閣에 있던 사람이름을 모두 대면 그들도 모두 잡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어찌 좋은 묘책이 아니겠는가[72]

하였다.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곧 일어서서 가다가 서로 돌아보며

> 저 사람이 우리를 빌어 일시의 名流를 모두 죽여버리려 하니 大奸의 꾀가 너무 교활하다.

고 하였다.[73] 최명길이 처음 斥和論者를 대거 색출하여 숙청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이들로 하여금 언관들을 거세하려 권모술수를 쓴다는 인식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대신 등 廟堂을 중심으로 한 主和論과 언관의 臺閣을 중심으로 한 斥和論은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진에 도착하니 龍骨打가 나와 맞고, 청제의 말이라 전제하여

> 너희들이 만약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大軍이 왔을 때 어찌 출전하여 싸우지 않고 산성에 웅크리고 숨었느냐.

라고 힐난하였다.[74]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 우리 조선이 大明에 眠事한지 이미 300년이다. 한 나라의 臣民으로 大明만을 알 뿐이다. 너희 나라는 이미 大號를 참칭하였으니 義가 끊어졌다. 때문에 우리 나라는 春初에 이미 義理에 의거하여 배척하고 절교하였는데 얼마되지 않아 信使

(71) 《吳忠烈公遺稿》 坤 遺事 「奴賊請得首謀斥和之人 廟堂欲送數十餘人 而其人等自相辨明 數日未決 於是 淸陰金公鄭公薀尹公煌 皆以斥和自首 公與尹學士集 聯名請往 而鳴吉之所深忌者 無如二學士 故意以二人塞一國之禍 嗚呼慟哉」

(72)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修撰 吳達濟條

(73) 위와 같음

(74) 위와 같음

를 통하니 매우 그르다. 때문에 우리들이 논쟁하였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大義일 뿐 이기고 지는 일과 存亡은 논할 바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논지를 폈다.(75) 그러나 힘의 논리에만 의거한 북방족이 조선 언관의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이들의 士氣를 꺾어 굴복시키는 것뿐이었다.

龍骨打는 이들의 묶은 것을 풀어주라 하고 최명길에게 치하하였다. 최명길이 돌아와서

吳·尹이 만약 내 지시대로 했다면 무사히 보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진 앞에 이르러 이와 같이 대답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두려워 겁이 난 것이다.

라 하여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한다.(76)

한편 龍骨打는 다시 吳·尹 두 사람을 심문하여

너희들의 이름은 내가 전에 들은 바 없다. 아마 首唱人이 아닌 것 같다. 또 수창자는 비단 흉악한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제 모두 실토하면 너희들은 면할 수 있다.(77)

고 회유하였지만,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조사해서 우리들을 보냈는데 또 누가 있겠는가? 우리들에겐 한번 죽음이 있을 뿐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끌어들이겠는가(78)

하였다. 龍骨打는 재삼 협박하여

지금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79)

하니, 두사람은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내 머리를 이고 왔으니 자르는 것이 마땅하면 곧 자르고 다시 더이상 말하지 말라.(80)

고 잘라 말했다. 이들을 지키던 청나라 장군 두 사람이 그 節義에 탄복하여

(75) 위와 같음
(76) 위와 같음
(77) 위와 같음
(78) 위와 같음
(79) 위와 같음
(80) 위와 같음

존경심을 갖고 이들의 침식을 돌보면서

심양에 도착하면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였다 한다.[81]

이들이 심양으로 잡혀가던 도중 2월 3일에 윤집은 형 尹集의 전사소식을 듣고 楊花津에 이르러 아우 尹柔에게 편지를 썼다.

淸이 작년봄 斥和論을 앞장서 주장한 사람을 요구하였는데 廟堂이 洪翼漢으로 대답하였다. 청은 또 성안에 있는 斥和人을 색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성중에는 거기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나와 吳達濟가 그 일을 당하기로 하였다. 이 일은 내 스스로 한 것이지 조금도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 남아가 이 땅에 나서 몸바쳐 나라의 위급을 구하는 일이 행복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老親께서 臨日하신데 다시 뵙지 못하고 말 것이니 하늘을 우러러 울 뿐이다.[82]

하여 스스로 택한 길에 후회도 원망도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불효가 슬플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오달제에게

내가 구차스러운 곤욕을 고루 맛보고 오랑캐의 땅에서 죽게 되니 차라리 우리 나라 땅에서 죽는 것만 못하다.[83]

고 하였다. 이에 오달제는

옳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한번 죽음이 있읍니다. 이제 죽을 장소를 얻어 節義를 밝힐 것이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읍니까? 하필 匹夫의 생각을 본받겠습니까.[84]

하고 만류하였다.

4월 15일 심양에 도착하자 禮部衙門에 갇혔고 19일 다시 龍骨打가 戶部로 끌어내어 청제의 말을 전하여

너희들은 비록 斥和하였다지만 首唱은 아닌 듯하니 꼭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처자를 거느리고 이 땅에 와서 살라.[85]

(81) 위와 같음
(82) 위와 같음「淸國固求去春首謀斥和之人 廟堂以洪翼漢爲對 而又求在城之人 城中適無其人 吾與吳達濟 陳疏自當 此乃身自爲之 少無尤人之事矣 男兒墮地 捐身救國家之急 斯亦幸矣 更何言哉 只以老親臨午 意不得更拜 仰天注血而已」
(83) 宋時烈의「三學士傳」校理 尹集 修撰 吳達濟條
(84) 위와 같음
(85) 위와 같음

고 회유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죽이라.[86]

하였다. 龍은 계속 달래고 어르고 접주었지만 두 사람이 끝내 굴복하지 않자 더 이상의 설득이 무망함을 알고 심문을 끝냈다. 두 사람은 돌아와, 데리고간 노복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다.[87]

하니 노복들이 놀라 울며

어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노여움을 북돋아 화를 자초하십니까?[88]

하니 두 사람은 웃으며

屈身之辱이 죽음보다 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89]

하였다.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 돌아오며 태연스럽게 담소하더니

우리들이 만약 저들의 말을 따르면 마침내 左衽之人(오랑캐)이 될 것인데 이것이 참을 수 있는 일인가?[90]

하였다.

잠시후 龍骨打는 다시 나타나 두 사람을 끌어 내고 質館(심양에 조선사람들이 인질로 체류하던 공관)의 宰臣들과 侍講院 관리들을 입회시킨 자리에서 다시 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두 사람은 완강히 물리치고 거절하기를 되풀이하였다.[91] 宰臣들이 나서서 간곡하게 타이르고 권고하였지만 이들은 끝까지 버티고 끝내 항복하지 않으니 드디어 형장인 심양성 서문밖으로 끌려갔다.

5월 24일 質館宰臣 朴簪·南以雄·朴潢 등은 書狀으로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본국에 보고하였다.

---

(86) 위와 같음
(87) 위와 같음
(88) 위와 같음
(89) 위와 같음
(90) 위와 같음
(91)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4월 戊子條 및 《瀋陽狀啓》 丁丑 5월 24일조 및 《瀋陽日記》 丁丑 4월 19일조

지난 4월 19일 龍將이 신 등 세 사람과 兼輔德 李命雄 등을 불러 좌정케하고 尹集과 吳達濟를 引出하여 황제의 말이라고 전하기를 「이들의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 人命이 중하므로 全治하여 妻孥를 거느리고 入來하여 이곳에서 사는 일을 許令케 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에 윤집은 「처자가 난 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하고 오달제는 「지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제와서 만약 생환하여 임금과 노모를 다시 본다면 죽는 것만 못하다」 하면서 全治之恩은 생각하지 않고 抗言만하여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신 등이 「이들이 모두 나이 어리고 오로지 君親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여 이와 같이 망발하니 끝내 曲全해 주신다면 어찌 千載의 美事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재삼 변명하였지만 마침내 면치 못했습니다.(92)

6월 6일 書狀이 도착하니 인조는 政院에 敎를 내려

二臣의 일은 극히 慘惻하니 마땅히 그들의 집에 달마다 생활비를 지급하라.(93)

고 명하였다.

두 사람이 심양성 서문밖 형장에서 죽을 때 質館에 있던 弼善 鄭雷卿이 통역을 시켜 그 시체를 인수하기를 간청하였지만 끝내 허락받지 못하였다.(94)

홍익한은 首唱人으로 지목되어 먼저 심양에 끌려가 청태종의 직접심문에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3월 5일에 죽음을 당하였음에 대하여 이들 윤집과 오달제는 龍骨打가 청태종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청의 입장은 이들 윤집과 오달제가 젊고 首唱人도 아닌 희생양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굴복하기만 하면 살려줄 의도였던 것이다. 가족까지 거느리고 살아도 좋다고 회유했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들을 청으로서는 살려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 세 사람은 조선 士大夫의 기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95)

1937년 7월 4일 인조가 謝恩使 李聖求 등의 復命을 받기 위해 초견하는 자리에서 이들 三學士의 죽음에 처한 상황과 그들의 의연한 순국의 자세를 진지하게 논하고 그 가족에 대한 救恤의 조치를 점검하였다.(96)

---

(92) 위와 같음

(93)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6월 乙巳條

(94) 宋時烈의 三學士傳 중 修撰吳達濟條

(95) 청나라 측의 자료에는 「조선국 臺諫官인 洪翼漢, 校理인 尹集, 修撰 吳達濟를 사형하였다」하고 그 이유는 「以集唱議袒明 敗盟構兵故也」라 밝히고 있다.

(96)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7월 庚午條

4. 三學士의 詩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홍익한은 52세, 윤집은 32세, 오달제는 29세로 생을 마쳤으므로 이들이 후대의 사대부와 같은 방대한 문집을 남길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란후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이나마 정리된 저작이 있다.[97] 이 논문에서는 그들의 對淸意識과 조선의 言官으로서 갖게된 인식과 사명의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작들을 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98]

〈洪翼漢〉

(1) 聞奴虜僭號(여진이 나라이름을 淸이라 僭號함을 듣고)

盤血紛紛有主謀
老臣奚獨抱深羞
幸生隣鳳[99] 時和日
遲死龍蛇國潞秋
漠北羌兒輕寶鼎[100]
大明天子按金甌[101]
東漢禮義今何處
拭玉行人謾叩頭

소반위의 핏자국 어지러우니 主謀가 있을 터
늙은 신하는 어찌 홀로 깊은 부끄러움을 품게 되었나
행여 살아서 이웃 여진과 화해하는 날이 온다면
차라리 죽어서 성현의 나라의 가을이 낫지
사막북쪽의 되놈아이 寶鼎을 가볍게 여기니
大明의 천자는 金甌나 어루만지고 있구나
東漢의 예의는 이제 어디 있는가
옥을 다듬는 행인이 거짓 고개 숙이네.

---

(97) 이들중 오달제만 《吳忠烈公遺稿》 2冊을 남기었고 홍익한은 《花浦先生朝天錄》이라는 중국기행기가 있다.
(98) 아래 세사람의 詩作은 《尊周彙編》(제11책 권22)에 의거하였으므로 일일이 주를 달지 않겠다.
(99) 용사란 비범한 인물이나 聖賢을 말한다.
(100) 귀중한 솥 즉 천자의 상징임
(101) 금구 : 쇠로 만든 항아리, 寶鼎에 비교할 때 보잘것 없는 물건을 뜻함.

이 시는 1636년(인조 14) 여진족의 후금이 淸이라 나라 이름을 정하고 황제를 칭한다는 소식을 듣고 쓴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신봉해온 세계, 明을 중심으로 한 天下라는 동북아시아에 오랑캐가 稱帝하며 무력으로 진출하는데 대한 우려와 개탄의 상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자신을 스스로 老臣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늦게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52세에 언관을 맡은 처지를 말한다.

(2) 除平壤庶尹 西下路便 不得達 留漏奴津村舍 書懷(평양 서윤을 제수받고 서쪽으로 가던 중 길이 막혀 도달하지 못하고 漏奴津의 村舍에 머물며 글로 회포를 풀다.)

胡騎一夜蹙西京
誰是靑邱[102]萬里城
廟算專依都體府
關防還付一書生
人煙斷絕惟兵火
民氣蕭條盡死聲
孤影杳然行在隔
此來叵耐老臣情

오랑캐의 말탄 군사 하루밤에 서경에 육박하는데
그 누가 이나라를 靑邱만리성이라 했던가
조정의 계책은 오직 도체부에 의지하니
국경방비를 일개 서생에게 부쳤구나
사람의 인적은 끊어지고 오직 兵火뿐
백성의 기운은 소조하고 다 죽은 소리
외로운 그림자 아득히 가는 길에 떨어지고
이번에 온 것은 늙은 신하의 정으로 조금은 견딜만하네.

이 시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홍익한이 그 해 봄에 言官으로 斥和한 행위에 대해 問責당하여 12월 평양서윤으로 인사조치당하여 가는 도중 지은 시다. 최명길이 체찰사 金瑬에게 「斥和해서 청의 침략을 초래한 자는 홍익한이니 지금 공석중인 西路之任은 그 말고 누구이겠는가?」 하여 그를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다.[103] 위의 시에서 조정의 계책은 도체부에 의지하여 국경방비에 일개 書生에 불과한 자신을 보낸 처사를 비웃고 있을 뿐만아니라

(102) 청구는 옛날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103) 주(33)과 같음

(廟算專依都體府 關防還付一書生) 오랑캐의 기마병이 하루밤사이에 서경에 도달하는 이 작은 땅을 푸른 언덕 만리라 표현한 허장성세와 그들의 빠른 기동력에 무력하게 당한 허탈감이 잘 드러나 있다(胡騎一夜蹙西京 誰是靑邱萬里城). 아울러 사람이 밥짓는 연기는 끊어지고 兵火만 가득한 길에 홀로 사지를 향해 가는 고독한 심경이 처연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때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했을지도 모르겠다.

(3) 初到寶山城夜吟(보산성에 처음 도착하여 밤에 읊다.)

蒼黃御命下雷封
三尺靑萍[104]但自從
天實眷人那送死
鬼能扶我竟除兇
龍顏爰隔雲千里[105]
鶴髮孤栖海幾重[106]
江上閑城還獨守
廟謨偏及寶山峯

어명으로 임명받아 서두르다
세척의 칼만 차고 왔네
하늘은 정녕 사람을 돌본다는데
어찌 죽음으로 내몰까
귀신만이 나를 도와 마침내 재앙을 물리칠까
용안은 구름천리 멀리 있고
학가(鶴駕 : 세자의 수레)는 바다멀리 몇겹이나 포위되어 있네
강가 한가로운 성에 돌아와 홀로 지키니
묘당의 명령은 보산성 봉우리에나 미치고 있네.

홍익한이 창황히 어명을 받들고 보산성에 도착한 날 밤에 읊은 시로 그의 울적한 심회가 표현되어 있다. 하늘이 자신을 죽음의 길로 보내어 귀신이나 곤경을 면하도록 도와줄 것인가(天實眷人那送死 鬼能扶我竟除兇) 하는 대목에선 정당한 자신의 행위가 도리어 死地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된 사태에 분노가 치미는 듯하고 마지막 구에서 역시 조정의 편파적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04) 청평 : 옛날 越王 句踐이 소유했었던 名劍
(105) 임금이 남한산성에 멀리 떨어져 있음을 표현한 것
(106) 세자가 강화도에 있음을 상징함. 鶴髮은 鶴駕를 달리 표현한 것 같다.

(4) 曉吟遣懷(새벽녘 회포를 풀어 보내며)

落月低江水接天
孤臣心事曉燈前
嬰城[107]鼓角兵三百
匝地干戈路幾千
青漢快機今若此
翠華[108]消息尙茫然
深坐達朝垂淚盡
濺衣哀血欲成泉

지는 달 강에 떨어지니 물과 하늘이 맞닿았네
외로운 신하의 심사 등불 앞에 흔들리다
굳게 닫아 건 평양성 안 군사 삼백뿐
땅을 메운 병기 길에 수천이 깔렸네
青漢의 쾌속기계 이와 같은데
천자의 군대는 소식이 없네
아침이 되도록 들어 앉아 울다 눈물마저 다하고
옷깃 적시는 슬픈 피로 샘물 이루었네.

밤잠을 못 이루고 중과부적의 전황을 걱정하는 홍익한의 심경이 나타나 있다. 그때까지 명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던듯 전쟁의 절박함과 그의 고뇌를 절절하게 살필 수 있다.

(5) 正月十五日 鷄初鳴 遙拜行宮[109] 懷抱甚惡 吟一律(1월 15일 첫닭 울 때 行宮인 남한산성쪽에 요배할 때 회포가 몹시 사나와 율시 한수를 읊다.)

癃然扶起望行宮
江水滔滔日夜東
倉卒未能踰釵外
艱虞應復坐薪中
蒼雲荷斧[110]圍方急
玉色臨兵計已窮
啼血兩垂遙拜處

(107) 평양의 별칭
(108) 취화 : 천자의 깃발, 즉 명나라 군사.
(109) 임금이 임시로 거처하는 집. 여기서는 인조가 피난해 있던 남한산성을 일컬음.
(110) 하부 : 임금이 있는 곳을 뜻함. 斧越之下라는 임금의 위엄을 뜻하는 말에서 연유한 듯하다.

曉天霜月照孤忠

파리한 몸 기대어 일어서 행궁을 바라보니
강물은 밤낮 동쪽으로 도도히 흐르는데
한순간에 적진 너머로 뛰어 넘을 순 없어
어렴사리 다시 팰나무 가운데 앉았네
푸른 구름 荷斧를 에워싸 바야흐로 급하구나
파르스름한 새벽빛 스며드는데 병사의 계책은 이미 궁하더라
피를 토하듯 울어 두눈에 눈물 흘리며 요배처에 서성이니
밝아 오는 하늘에 시린 달이 외로운 충신을 비추네.

이 시 역시 寶山城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 속에 새벽녘에 일어나 앉아 지은 시이다. 1월 15일이라면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한창 조여들어가는 상태로 성안팎에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이다. 풍전등화같은 국가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과 포위된 왕에게 멀리서 요배하는 신하의 괴로운 심정이 형상화 되어 있다. 그가 있던 보산성이나 남한산성이나 고립되기는 마찬가지였다.

(6) 寶山城夜聞 江上笛聲 感而賦之(보산성에서 밤에 강가의 피리소리를 듣고 느끼는 바 있어 부치다.)

月黑關河路
荒林虎欲行
翹心思國士
扶義募鄉兵
默究皇天意
艱虞獨夜情
數聲何處笛
吹恨滿江城

검은 달 물길에 비치고
황림엔 호랑이 어슬렁대는데
어디에 國士있어
의에 부쳐 향병 모집할까
가만이 皇天의 뜻 생각해보니
근심 속에 홀로 밤정이 이네
어디선가 몇가락 피리소리
한을 불어 강성을 채우네.

이 시 역시 寶山城에서 守城하면서 어느 날 밤 피리소리를 듣고 읊은 시이다. 어느 열사가 의병을 모집해 오지 않을까, 또 명나라의 의도는 무엇인가, 구원병은 오지 않는 걸까. 의병과 명나라 원군을 기다리는 간절한 원망이 이 시의 핵심이다. 나라의 앞날과 전란의 경과를 주시하며 憂國의 念을 읊은 애국시이다.

(7) 江西縣令 送二生魚 感賦(강서현령이 생선 두마리를 보내니 감격하여 시에 부치다.)

笙箸腰揷有歸人
饋我春江白錦鱗
吳市[111]慣看仍感舊
楚江[112]那忍獨嘗新
圍中禁齋令應窘
僻處親厨已到貧
臨食輒忘甘口味
悄然羈抱動酸辛

종다래귀 허리에 차고 돌아가던 이
봄 강에서 잡은 생선으로 나를 먹였네
오나라 저자에서 흔히 보던 것, 옛날이 그립구나
어찌 차마 초강에서 홀로 새 것을 맛보리오
포위 중의 궁궐에는 이제 궁색함일 터인데
궁벽한 곳 부엌에도 이미 가난이 괴었네
먹으려니 문득 입에 단 맛을 잊고
고적한 나그네의 회포에 신맛이 도네.

이 시는 이미 군량미나 부식이 바닥난 상태에서 강서현령이 생선 두마리를 보내자 감격하여 부친 시인데 남한산성에 갇힌 임금도 지금쯤 궁색하여 생선조차 없을 터인데 자신이 막상 먹자니 마음에 걸리는 忘君의 정을 들어내고 있다. 그런 저런 시름으로 막상 생선맛도 모르겠고 고적하고 울적한 심사때문에 오히려 입에 신맛이 돈다는 종장은 안타깝고 괴로운 심경의 토로이다.

(8) 聞王師連捷 倚闔東望 因構一律(王師가 연이어 승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

(111) 오시는 서울을 비유함
(112) 평양의 대동강을 비유함.

안 중문에 기대어 동쪽을 바라보며 율시 한 수를 읽다.)

蒼雲已解七重圍
殘寇游魂盡恒威
左次屢聞崩厥角
右賢方竪乞降旂
兵解震疊寧容息
號令風飛立決機
遙想即今歌鼓競
何人鞍掛月支[113]歸

푸른 구름 겹겹이 에워싼 것 풀리자
패잔한 적은 위엄을 다했네
왼쪽으로는 귀퉁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고
오른쪽으로는 어진 사람 항복의 깃발을 기다리네
병사는 해산하여 차라리 쉼직한데
호령소리 바람에 날려 결정적 기회 되겠지
아득히 상각하니 이제 노래소리와 북소리 요란한데
누가 말안장 걸고 월지로 돌아갈까.

이 시는 관군이 승전한다는 소식에 큰 기대감을 읊은 희망의 시이다.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그에게 위로와 기대를 준 듯 고무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9) 聞賊兵逼近 曉坐得一律(적병이 가까왔다는 소식에 새벽에 일어나 앉아 律詩 한 수를 얻다.)

戍角烏烏曉月斜
浮天魂夢半江華
星離骨肉渾何處
飄泊妻兒定靡家
經國豈無參聖術
用兵還愧下穰苴
輪囷一氣撑胷臆
挑盡殘燈撫釵花

수비병의 나팔소리 구슬피 새벽달 지는데
하늘에 떠 있는 혼 꿈에 반은 강화도에 있네

(113) 월지는 옛 서역의 나라이름. 이 시에서는 청군이 고향에 돌아감을 비유함

흩어져 이별한 육친은 어디서 헤메고 있을까
떠도는 처자식은 거처할 집 없을듯,
나라를 다스림에 어찌 聖術을 참고하지 않을까
용병의 부끄러움 무성한 삼처럼 내리네
높고 큰 한 기운이 가슴을 움켜쥐고
돋아 놓았던 등불 꺼져 가면서 칼꽃을 어루만지네

앞의 시들이 남한산성에 포위된 왕에 대한 충성이나 우국충정을 주제로 한 데 비해 이 시는 패전을 목전에 두고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며 불안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괴로운 심사를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시는 보산성에서의 마지막 작품으로 보인다.

(10) 三月三日 在瀋陽 悄悄孤吟 得一律(3월 3일 심양에서 근심에 잠겨 외로이 읊시 한수를 읊다.)

陽坡細草折新胎
孤鳥樊籠意轉哀
荊俗踏靑心外事
錦城[114]浮白夢中來
風飜夜攪陰山動
雪入春澌月窟開
飢渴僅能全縷命
百年今日淚盈腮

양지바른 언덕에 돋아나는 풀 뾰족뾰족 얼굴을 내밀고
새장에 갇힌 외로운 새 구슬피 우네
옛 풍속의 踏靑은 마음 밖의 일
錦城은 희미하게 꿈속에 떠오르네
바람불어 밤을 휘저으니 그늘진 산이 움직이는 듯하고
눈 잦아들고 봄이 다하니 月窟(달 속의 바위굴)이 열리는 듯
배고프나 실낱같은 목숨 겨우 보전하고
백년후 오늘도 눈물이 가슴에 가득찰까?

이 시는 심양으로 끌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심경을 적은 것이다. 봄빛 찬란한 밖의 풍광과 대조적인 자신의 처지를 조롱에 갇혀 슬피 우는 새로 비유하고 고국에서 봄날 푸른 풀을 밟던 踏靑도 마음에 없고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슬픈 정조면서도 일말

(114) 서울을 비유함

의 초탈함이 엿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열 편의 시는 대부분 七言律詩의 형태인데 내용은 전쟁 중의 처연한 심경, 우국충정이 대부분 시제로 되어 있다. 1636년 봄부터 다음해 심양에 잡혀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국을 그리며 지은 시까지 병자호란에 관련된 시작품들이다.

〈尹 集〉

(1) 用前韻述懷〔丁卯亂後〕(앞서의 운을 써서 회포를 펴다.)

如何驕虜尙橫行
媚賊姦臣壅物情
禽鳥不知宗社恥
臨風猶作舊時聲

어찌하여 교만한 오랑캐는 날뛰고
아첨배와 간신들이 물정을 덮어버리는가
새들은 종사의 수치를 아지못해도
오히려 바람에 날며 옛소리로 우네.

이 七言絕句의 시는 1627년 정묘호란을 겪고 나서 여진의 교만함과 화친을 주장한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때 그는 22세로 이 해에 小科 생원에 합격했던 것이다.

(2) 登高傷時(높은 곳에 올라 때를 근심하다.)

登高天地望如窮
塞外胡兵在目中
胸呑雲夢知何用
鈒挾雄心倚晩風

높은 곳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니
변경밖 오랑캐군이 눈앞에 있네
가슴에 품은 꿈이 무슨 소용이리
칼차고 雄心으로 저녁바람에 기대다.

이 시는 병자호란시에 남한산성에 갇혀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전쟁의 추이를 걱정하며 지은 것 같다. 여진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나 있다.

(3) 醉時歌送人 (취하여 노래하며 송별하다.)

壯士悲吟隘六荒
匣中雙釵老霜鋩
斗間紫氣如相問
爲說江南白首叩

장사의 슬픈 읊조림에 사방이 막히고
상자속 쌍칼엔 서리발 같이 묵은 서슬이 끼어 있네
북두칠성에 어린 紫氣 서로 묻는 듯싶고
강남일 말하는 이 백수만 끄덕이네.

이 송별의 시는 싸우러 나가는 장사를 위한 것 같은데 언제인지 분명치 않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남한산성에서 지은 것이 아닌가 싶다.

(4) 又用前韻述懷 (또 전운을 써서 회포를 펴다.)

翠華遙作去邠行
帷幄誰能測虜情
廟城區畫惟和事
西塞終無戰鬪聲

천자의 깃발은 멀어만지고
장막 안 누가 오랑캐 동정을 헤아릴 수 있으랴
묘당엔 오로지 화친의 계획뿐
서쪽 변경엔 끝내 전투소리 없구나.

명나라 원군을 기다리며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망감을 읊은 시이다. 기다리던 명군은 오지 않고 조정은 화친을 서두르고 있는데 자신은 斥和論者로서 義兵도 오지 않는 딱한 처지가 잘 묘사되어 있다.

〈吳達濟〉

(1) 憶母親 韻用進退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운은 진퇴체를 쓰다.)

風塵南北各浮萍
誰謂相分有此行
別日兩兒同拜母
來時一子獨趨庭
絕裾已負三遷敎
泣線空悲寸草情
關塞道修西京暮
此生何路更歸寧

전쟁으로 남북으로 갈려 부평초같이 떠도니
서로 나뉘어 이 길 가라고 누가 말했나
언제던가 두 아들이 함께 어머님 뵈온 것이
이젠 아들 하나만 조정을 따라 홀로 가네
옷자락 끊어 어머님의 삼천교 이미 져버리었네
흐르는 눈물 줄기 풀잎의 정같이 헛되이 슬픈데
국경으로 가는 길 막혔고 서경길도 저물었는데
이 한 목숨 어느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시는 1637년 正月 잡혀 북쪽으로 호송되면서 信川땅에 도착하여 10여일 머무는 동안 지은 것이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丁丑正月日 被執北去 行到信川地 留十餘日 作此詩).

가족과 헤어져 포로의 신세로 북으로 끌려가면서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마지막 구인 「此生何路更歸寧」에서는 이미 이 세상을 단념한 듯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又七言絕一首 (또 칠언절구 한 수를 짓다.)

孤臣義正心無作
聖主恩深死亦輕
最是此生無限痛
北堂虛負倚門情

외로운 신하의 의리 바르니 마음에 부끄러울 것 없고
임금의 은혜 깊으니 죽음은 가벼운 것이네
가장 바른 인생은 한없는 아픔이려니
북당 문에 기대어 헛된 정일랑 져버리려네.

이 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죽을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 있는 내용이다.

위의 두 편의 시와 편지는 대동강변 村家에 머물며 그집 주인 노인에게 부탁하여 평안감사를 거쳐 政院에 전달되고, 다시 오달제의 집에 전해졌다. 이외에 형 吳達升과 아내에게 부친 시가 있다.

(3) 寄伯氏 (형님에게 부침)

南漢當時就死身

楚囚猶作未歸臣
西來幾洒思兄淚
東望遙憐憶弟人
魂逐塞鴻悲隻影
夢驚池草惜殘春
想當彩服趨庭日
忍作何辭慰老親

남한산성에 갇힐 때 죽기를 각오했더니
초나라에 잡혀 돌아가지 못하는 신하같네
서쪽으로 오면서 형님 생각에 몇 번이나 눈물 뿌렸던가
동쪽을 아득히 바라보니 동생 불쌍히 여기는 사람있네
변방에 쫓겨온 혼 슬픈 그림자 두 개
꿈꾸다 놀란 연못의 풀잎같이 殘春을 아까워하네
때때옷 입고 뜰에 뛰놀던 시절 생각하니
차마 무슨 말로 늙은 어머님을 위로하리요.

이 七言律詩는 심양에 도착하여 형 오달승에게 부친 것인데 애틋한 형제애와 어머님에 대한 죄스러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슬픈 想念이다.

(4) 寄內 (아내에게 부침)

琴瑟恩情重
相逢未二期
今成萬里別
虛負百年期
地闊書難寄
山長夢亦遲
吾生未可卜
須護服中兒

금슬의 은혜와 정이 두텁더니
서로 만난지 채 이년이 못되었는데
이제 만리나 멀리 이별하다니
백년을 함께 살자던 기약 헛되이 저버렸구려
땅이 멀어 글도 부치기 어렵고
산이 길어 꿈역시 더디구료
내 삶은 점칠 수 없으니
부디 뱃속의 아이나 보호하시요.

이 五言律詩는 심양에서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보낸 유언의 시이다. 이

시를 보거나 들은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신혼의 단꿈이 깨지기도 전에 만리나 이별하여 꿈조차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느낌으로 유복자를 부탁하는 애절한 심경이 간절히 표현되어 있다.

결 론

이상으로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시 斥和論의 상징적 인물로 이역만리 심양에서 殉國한 三學士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西人과 南人의 순정성리학자들은 바야흐로 자신들이 신봉하던 성리학적 이념을 정치현실에 구현하려는 이상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전에 일어났던 당시의 세계대전이라 할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세계는 재편되고 있었고 조선은 당시의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華夷論에 입각한 名分論을 고수하려다 결국 병자호란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홍익한·윤집·오달제를 三學士라 묶어 〈三學士傳〉을 짓고 재평가한 사람은 송시열이지만 이 작업은 조선후기 사회의 재편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文治國家이던 조선이 무력을 숭상하고 힘의 논리에 의거한 야만족인 여진에게 패배하고 극도의 좌절감속에 자기회복의 방법으로 들고 나온 北伐論의 大義는 호란시 인물들의 행적을 재평가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미 小中華를 자처하며 문화국가임을 자부하던 조선 士大夫로서 북방오랑캐에 불과한 夷狄인 여진족에게 兄弟의 호칭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하물며 父子의 稱이나 君臣의 稱은 가당치 않은 무리한 요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인조반정 직전 정권인 大北政權은 對女眞政策에 있어 유연한 실리외교를 폄으로써 환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인조반정후의 이른바 서인정권이 헛된 名分論을 고수함으로써 전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병자호란의 상징적 인물인 三學士 역시 가능성없는 斥和論을 고집하여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反歷史的 人物로 치부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산성에 갇혀 항쟁하면서 홍문관 교리라는 언관직에 있던 윤집이 「내 스스로 애걸하면 적은 더욱 경멸하여 和議는 마침내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싸워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후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데서[115] 斥和論이 主和論의 뒷받침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主和論者들의 종전협상에 斥和論者들의 강경론이 배후작용을 함으로써 좀 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청나라를 세운 여진에게 조선 士大夫의 만만치 않은 기개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전란중에 이상론내지 원칙론인 斥和論과 현실론인 主和論으로 갈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유교적 명분론자로서 북방족인 여진족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 현실타개 방법론상에 이견을 보였던 것이다. 주화론의 대표주자로 강화를 주도한 최명길조차 뒤에 심양에 잡혀 유폐되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병자호란 당시 홍익한은 52세, 윤집은 32세, 오달제는 29세였지만 이들은 모두 言官職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익한은 인조반정후 39세의 나이로 大科에 급제하여 늦게 출사하였고 병자호란이 나던 1636년 봄 사헌부 掌令으로 斥和論에 앞장섰던 것이다. 윤집은 홍문관 校理, 오달제는 홍문관 修撰으로 호란당시의 언관들이었다. 이들은 士林의 公論을 대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斥和論은 사림사회라는 당시 지식인 사회의 公議이자 國論이었기에 이들은 회피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신과 함께 이를 조정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言官은 朝鮮性理學의 理念을 정치현실에 구현해 가는 17세기 조선사회에 있어 그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國難에 처하여 그 위상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名分社會였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현창되었던 이들 三學士에 대한 역사적 위상은 이른바 근대사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학계를 석권한 식민사학과 그 이후 실용주의 사회에서의 역사인식 체계에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에 입각한 식민사관 내지 공리주의적 시각으로는 名分을 중히 여긴 조선지식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도, 정당하게 자리

(115) 주 (39)과 같음

매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당한 평가작업이 당위가 된 현실에서 三學士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우선 三學士에 대한 현창사업을 하게 된 17세기 조선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애와 호란시 언관으로 수행한 활동상을 살폈다. 아울러 호란을 전후한 이들의 詩作을 음미하여 그들의 정서와 심경의 변화, 호란에 임하는 자세 등을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들의 전체상을 재구성하는 보조자료로 삼았다.

원래 이 작업은 1984년, 80년대 중반의 어려운 상황을 학문적으로 극복해 내고자 하던 필자의 노력의 결실로 초고를 엮었지만 당시로서는 발표하기에 시기상조라 여겨 7년여를 묵혔다. 초고 중 이들에 대한 조선후기의 국가적 개인적 추모사업은 당시 사상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尊周論과[116] 연관되는 주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논문으로 독립되므로 후고로 미루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116)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尊周論은 朝鮮中華主義 성립의 기초였다.